

우수 창업기업 발굴로 지역발전 앞장

전북대,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사업 선정 22억7천만원 확보... 16명 선발 최대 1억 지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정부가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존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세대융합 창업캠퍼스사업, 스마트벤처 캠퍼스 등 세 가지 사업을 통합해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이다.

전북대는 2015년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된 이후 5년 연속 창업지원 관련 사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지역대학으로는 유일하게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실용실험형 창업선도대학 사업도 수행하며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전북대는 22억7천700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해 초기

창업자들이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이달 중 16명의 창업자를 선발해 최대 1억 원의 창업 사업자금과 창업 공간, 창업을 위한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권대규 전북대 창업지원단장은 "그간에는 창업자 양성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면,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트렌드에 걸맞은 전문화된 프로그램 구축과 네트워킹을 활용한 해외진출 등을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성장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북대 창업지원단이 우리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창업활성화를 위해 더 좋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전경.

전북교육청,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 추진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도내 14개 시군 교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를 추진한다.

이번 연수는 예방 중심의 교원 교육활동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의 문화를 정착해 인권 우호적인 학교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6일 남원을 시작으로 21일 무주, 22일 임실, 23일 군산 등 6월말까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실시한다. 기존 교원보호책임관 중심으로 진행하던 것을 올해부터 참가를 희망하는 일선 교사 중심으로 확대추진할 방침이다.

이내연 변호사가 각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강의를 진행하며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의 이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 및 보호(대응) 방법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교원치유지원센터 소개와 2019년도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 계획도 안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행위"라며,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를 통해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육설, 폭력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교원이 직접 고소하거나 도교육청이 형사고발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교권회복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가 개교 55주년을 맞아 교수연구동 뒤편 황무지 땅을 정원으로 조성했다.

도심 한복관 유채꽃밭 '복적복적'

전주대 임기섭 과장, 사용되지 않던 공터 힐링의 땅으로 일궈

올해부터 전주 도심 한복관에서 유채꽃을 볼 수 있게 됐다.

전주대학교는 개교 55주년을 맞아 교수연구동 뒤편 황무지 땅을 정원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공터를 일궈내고 꽃잔디, 진달래꽃, 마가렛, 유채꽃, 철쭉 등을 심고 조형물과 의자, 테이블 등을 배치해 학생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원으로 탄생시켰다.

오랫동안 방치된 땅을 정원으로 탈바꿈 시킨 것은 전주대 시설지원실

임기섭 과장의 역할이 가장 컸다. 임 과장은 척박한 땅에 거름을 주고 때가 되면 잡초도 뽑아가며 꾸준히 땅을 관리해왔다. 그리고 개교 55주년에 맞춰 스타 정원을 만들어 학교를 아름답게 단장했다.

임 과장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줄이고 퇴근을 포기하며 손수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학교 어느 곳에서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열심자로 정원 산책로를 내어 접근성을

높였다. 잔디, 연못, 다리, 산책로 등 정원 곳곳에 그의 세심한 배려와 정성스런 손길이 담겼다. 전주대 임기섭 과장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땅을 아름답고 많은 사람이 오가는 땅으로 변화시키고 싶었다"며,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방문해서 꽃을 보며 학업과 업무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유채꽃밭과 꽃잔디는 이번 주까지만 볼 수 있으며, 봄, 여름, 가을 상시 정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마가렛, 백일홍, 구절초 등 계절별 다양한 꽃을 조성했다. 전주대는 주자를 비롯해 상시 개방돼 있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나눔과 소통으로 웃음꽃 '만발'

전북대 HRC 학생들, 손수 재배한 모종 무료 나눔 '호응'

15일 오후 전북대 뉴실크로드센터 앞에선 모종을 나누는 학생들과 이를 받아가는 지역민들의 웃음꽃으로 가득했다.

이날 전북대 우수 학생 기숙형대학(Hans Residual College, HRC)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팜플러 재배한 채소와 화훼 모종 6만 그루를 나누는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나눔 모종들은 전북대가 학생들에게 도전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도입한 우수학생 기숙형대학 프로그램 중 예코플로어 활동 학생들이 비교과 영역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재배한 것이다.

모종은 고추와 가지, 비트, 신선초, 케일, 방울토마토, 적작거리, 참외, 취나물, 방풍나물, 완두콩, 단호박 등의 채소와 화훼인 공작초 등 다양했다.

학생들은 올 1학기 시작과 함께 식물자원을 통한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박병모 교수(생명자원융합학과)의

지도를 받아 다양한 모종을 재배해 왔고, 그 성과의 기쁨을 지역민과 나누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러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나눔 행사장에는 500여 명의 구성원과 지역민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정기식 학생(생물산업기계공학과 2년)은 "HRC 예코플로어 활동 중 야외실습을 통해 파종부터 재배까지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즐거움을 느꼈다"며 "학생들이 직접 파종하고 재배한 모종을 지역사회에 뜻깊은 목적으로 나눔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날 모종을 받은 한 시민은 "전북대 학생들이 손수 재배한 모종을 나눠준다고 해서 캠퍼스를 찾았는데 모종과 학생들 모두 참 예뻐 보여서 기분이 좋았다"며, "지역의 대학이 지역민들과 나누고 소통하는 이러한 모습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맞춤형 진학지도 위한 입시설명회 개최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고·2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입시설명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시설명회는 2021~2022학년도 교육과정과 학생부종합전형 이해를 통한 대입전략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정승모 대입지원실장이 설명한다. 이어 조진표 와이즈멘토 대표이사(가)가 현명한 학과 선택 전략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궁금한 내용을 직접 묻고 설명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대입 맞춤형 진학 지도를 위해 입시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바쁜 입시제도에 대한 안내와 지원 전략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선생님, 언제나 오늘처럼 환하게 웃으세요"

희현초, 작은 전시회 열어

스승의 날을 맞아 희현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는 전시회를 열어 화제다.

이날 학부모회에서는 선생님 한분 한분에 대해 시를 짓고 선생님들께 담은 꽃을 그려 감사함을 전했다.

아이들은 카네이션 모자를 만들어 머리에 쓰고 본인들이 직접 카네이션이 되어 선생님들을 환영했다.

또한 미리 집에서 준비해온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각 반 밴드에서는 선생님을 응원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이날 행사를 준비한 임진영 학부모회장은 "평소 아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이렇게나마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항상 애쓰시는 선생님! 언제나 오늘처럼 환하게 웃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2019 바지락오감 체험 페스티벌

자~해볼까요? 잡자 놀자 먹자!

2019. 5. 18(토) ▶ 5. 19(일) 2일간

하전어촌체험마을 (전북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